

#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개처럼 살면 죽어서도 개 된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



무산 오현 스님은 ...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6세 때 절집 소머슴으로 입산해 행자생활을 하고 삭발염의 했다. 1959년 직지사에서 성준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8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비구계 수지. 신흥사 주지, 백담사 낙산사 신흥사 회주를 거쳐 현재는 신흥사 조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구성하여 1999년부터 매년 만해축전을 개최하며 세계평화시인대회,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등을 열었다. 제19회 정지용문학상(2007년), 제16회 공초문학상(2008년), 제5회 DMZ평화상 대상 수상. 시집 <심우도> <절간이야기> <아득한 성자> 산문집 <산문선답>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라> <벽암록> 등 다수 펴냄.

상(賞)은 기쁨이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다. 그 모양을 지켜보며 박수 보내는 사람 또한 기쁘다. 어떤 이름의 상이든, 어떤 내용의 상이든 상은 기쁨이다. 상은 성찰(省察)이다. 귀감이 되는 일을 되새겨 즐거워하고 여럿이 본받으며 세상에 아름다운 추억 하나 만들어 놓는 일이다. 그래서 사시식 행사장은 축제분위기가 있고, 그 속에는 되돌아보는 겸허함과 내다보는 희망이 공존한다. 겸허는 받은 사람의 뒷이고 희망은 받고 싶은 사람의 뒷이겠다. 상은 깨달음이다. 주고받는 상패와 상금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속에서 분출되는 에너지야말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덕으로 회향되는 깨달음이다.

제2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장은 기쁨과 성찰과 깨달음이 만개한 축제 마당이었다. 그 자리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인공 오현(五鉉 신흥사 조실) 스님의 삶이 그러하다. 일거수일투족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뜻사람들에게 깨침의 울림을 나눠주는 보시(布施)이니 포교대상이라는 이름에 딱 들어맞음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상패에 새겨진 문구가 중정(宗正)의 증명이다.

“위 스님은 평생 수행과 포교로 종도들의 표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에 공헌하였으며 특히 만해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와 문화교류에 앞장섬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포교대상 대상을 수여합니다.”

산중에서는 비길 이 없는 이관(理判)의 선승, 교구(敎區)와 종단에서는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사관(事判)의 지도자, 문단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구(一句)’를 토해내는 시인이 오현 스님이다. 이관과 사관을 ‘한 판’으로 융합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르는 에너지를 분출시켜 온 것이 안팎을 아우른 오현 스님의 진면목이다.

오현 스님은 언제나 부정(否定)한다. 관습에 물든 사유를 부정하고, 형식에 얽힌 것거리들을 부정하고, 진정성이 흐린 말(言論)들을 부정한다. 물론 스님의 부정은 대공정(大肯定)으로 가는 자비의 통로다. 부정이 강할수록 진실로 다가서는 길은 넓어진다.

“아-야. 그게 아닌거라.” 이 한마디로 세상의 참과 거짓을 하나의 길로 열어버리는 솜씨가 많은 시편(詩篇)들에 흐르고 있다. 오현 스님의 시 ‘아득한 성자’는 하루가 전생(全生)인 하루살이를 통해 생멸의 이치를 꿰뚫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를 오현 스님의 오도송(悟道頌)이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살아 있는 이 순간, 모든 것이 아득하다. 누구나 행복 하고 싶지만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다. 근심걱정 없는 시간이 별로 없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지 않는 시간도 많지 않다. 행복보다는 불행이 지배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러나 그 희박한 시간의 틈바구니에서 하루살이처럼 제 할 일 다 하고 죽는 즐거움이 있어 누구나 성자다. 그 적멸의 즐거움을 누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극락과 지옥이 갈려 있을 뿐.

“지식의 노예 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야 깨달은 삶”

만해 스님 정신이어 ‘유심’ 복간하고  
만해대상 축전 등으로 인류 평화 모색

아득함을 되돌려 깨침의 열락(悅樂)으로 현전시키는 힘, 오현 스님은 부정의 긍정으로 그 힘을 찾아내라고 거듭거듭 독려한다. 열쇠는 연기(緣起)와 인과(因果)의 질서 속에 묻혀 있는 무상(無常)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제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확대하면 1년 전 또는 10년 전에도 살았고, 1년 후나 10년 뒤에도 살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전생과 내생으로 연결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설명이 존재의 영원불멸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무상한 존재라는 점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만약 불변의 존재라면 늙거나 변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매순간 다른 존재가 영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런 존재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쓰러질 때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집니다. 다시 말해 개처럼 살면 살아서도 개로 불리고, 죽어서도 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라는 관념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윤회가 있다면 지은 업 보대로 받을 것입니다. 침언하면,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그림자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그림자가 그 사람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기 보다는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나다. 나무는 기운 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아름다운 인연 편)

지금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있는가? 극락을 향해? 지옥을 향해? 자신의 그림자를 잘 살펴 볼 것이다. 오현 스님은 법상(法相)에서도 한결같이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주문한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눈멀고 귀먹은 길, 그래서 눈 열리고 귀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시는 말씀 언(言)에 절 사(寺)로 이루어져 있다. 말과 글을 버리는 곳이 절이다. 대학 나온 사람보다 박사 석사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돼요. 지식의 노예가 돼 가지고, 글을 배워 놓으면 문자의 글자의 노예가 돼요. 아는 척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것 아무 필요 없어, 중 공부 하고는, 은행직원이 돈세는 것이나 똑 같아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헛일이라.”

“세상에 내 것은 없는 거야.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세속의 길이고 또 하나는 종교의 길이다. 여러분이 가는 세속의 길은 해가 뜨는 길이고 종교의 길은 해가 지는 길이다. 지식도 버리고 깨달음도 버리고 부처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세속의 길과 종교의 길은 방향이 다를 뿐 나중에 만나는 것은 똑같다.”

시상식에서 소개한 영상물에 나온 스님의 상당범어 내용이다. 하나의 길, 깨닫기 위해 깨달음마저 버리라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오현 스님은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읊었다.

무궁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별레 한 마리  
몸을 꿰다 오그렸다가

운갖 것 다 값아 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기는 별레 한 마리의 생에서 자화상을 관철(觀徹)하는 안목이 오현 스님의 가풍이라면, 이 ‘내가 나를 바라보니’ 라는 시도 하나의 오도송일 터. 스님의 말대로 시는 언어의 도량이니 깨달음의 향훈(香薰)이 스미지 않은 것은 시라 이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신경림 시인이 “스님은 수행자니까 그냥 수행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시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시로 씁니다. 어떤 설움이나 기쁨이나 하여튼 그런 감정이 일

##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운사

윤장대 인등

용우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류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LED 전구: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뭇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황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 제 할일 다하는 이가 聖者이다



조계종 제23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을 대신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무산 오현 스님에게 포교대상을 전달하고 있다.

어나면 그것을 문자로 붙들어 놓은 것이 시가 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광석화와 같아서 말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비친 달그림자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달그림자는 부서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 부서지기 이전의 상을 시로 담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깨달음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깨달음은 직설로 얻기도 하고  
격외로 격을 이루기도 한다

깨달았다는 사실보다는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야

깨달음은 직설로 도달하기도 하지만, 격외(格外)로 격을 이루기도 한다. 물론 가보면 직설도 격외도 한 길일 것이다. 오현 스님은 물외(物外)에 머물며 물상의 본질을 투과해 그 너머의 진리를 보여 주기 위해 시라는 방편을 선택했는지 모른다. 언젠가 물속에 비친 달을 건져 설악산 대청봉에 걸어두려는 욕심오로

시를 빼고 오현 스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7년 오현 스님의 시 '아득한 성자'를 제19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며 고은 시인은 짧은 심사평을 내놓았다.

벽에 그림을 그려 두었더니  
그 그림이 살아나서 그런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다니!  
이 격외(格外)와 이 의외(意外)가  
안개 자욱한 내설악  
안개 감싸온 외설악을 아우르고  
있게 되다니!

과연 오현음(五鉉吟)의 높이로다!

선지식이란 말은 깨진 이를 뜻한다. 이미 깨달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무위진인(無位真人)을 선지식이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고 세월이 얼마였든 상관없다. “깨달았다는 것조차 버려야 한다”는 오현 스님의 말은 깨달았다는 사실보다는 깨달은 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깨달은 이, 선지식의 삶은 어떤 것인가? 스님의 시 '절간 이야기 31'에 나오는 청개구리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게으른 세수를 하고 대야의 물을 버리기 위해 담장가로 갔더니 때마침 풀섶에 앉았던 청개구리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 담장 높이만큼이나 훌쩍 뛰어 오르더니 거기 담쟁이 넝쿨에 살포스 앉는가 했더니 어느 사이 미끄러지듯 잎 뒤에 바짝 엮드려 숨을 활짝거리는 것을 보고 그 놈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감탄을 연거푸 했지만 그 놈 청개구리를 제(題)하여 시조 한 수 지어 볼려고 며칠을 궁궁거렸지만 끝내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 놈 청개구리 한 마리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몇 겁(劫)을 두고 찬미할 지라도 다 찬미할 수 없습니다. 어렵거나마 느껴  
글=임연태 (시인 본지는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 용이 될 뻔 했습니다

지난 주 음악회에 갔다. 리스트(Liszt)는 헝가리가 낳은 작곡가요. 피아노 독주자이다. 리스트라는 이름은 16~17세기경 헝가리 민족을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음악가 리스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주자는 피아노 독주곡 악보를 통째로 암기해 건반 위에 토해 낸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거나 숙달했다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 마지막 출연한 메조소프라노는 우리 가곡을 부르지 않을까 기대 했었는데 웬걸 숨넘어가게 하나님만 찾고 있었다. 딱한 광경이 지속되었다.

종교(Religion)는 라틴어로 religio이다. 동떨어진 신과 인간을 결합한다는 의미이다. 그 신은 차별이 있지 않은 평등한 성품을 지녔을 것이고 인간 역시 지역이나 색깔로 나누어 질 수 없는 동일한 사람이다. 종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일신의 신봉보다 만인의 이해와 사랑이 우선 할 것이다. 관객은 리스트의 피아노곡을 이해하고 감상하고자 한 것이지 특정 종교의 선교회에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는 Union(결합, 통합)과 Religion(종교)이 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갈등 없는 통합된 종교(Uniligion)가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 예술가는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지 궤를 벗어나면 추하게 보일 수 있다. 그녀의 행위를 보고 Unilig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됐다. 훗날 다음 세대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렇다고, 절묘한 표현이라고 감탄을 보내리라 믿는다.

소련의 사회주의가 일찍이 붕괴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낙원이 됐는가. 지금 월가(Wall Street)에서는 공동분배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침내 진압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념도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념의 대안은 무엇인가. 자연이다. 꽃을 노래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해온 공동선이다.

형형색색이란 말이 있다. 색은 각각의 문화와 문명의 개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막의 붉은 모래는 불도의 땅을 의미했다. 나일강의 홍수에 의해 조래되는 검은 흙이 생활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검은색을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존중하고, 붉은색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숲의 나라이고 장작불을 삼키시키는 붉은색을 신성한 색으로 선호하였다. 붉은 광장도 신성한 광장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는 보라색과 노란색이 하늘과 대지를 상징하는 색으로 숭배의 대상이었다. 하늘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북극성이고, 그 근처에 천제(天帝)의 궁궐인 자미궁(紫微宮)이 있다고 여겼다. 징조(徵兆)가 보인다는 말은 별의 움직임을 말한다. 인간의 행운이나 행복은 북극성이 지배한다고 믿었다. 풍수에서 으뜸가는 철처를 자미원국(紫微垣)이라고 하는데 작은곰자리를 말한다. 실제로 별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미묘한 자색으로 보인다고 믿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이다. 마침내 보라색은 우주를 총괄하는 천제의 색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황하 문명은 노란색의 대지인 황토 평원에서 발달했다는 이유에서 노란색이 대지를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그 때문에 역대 왕조들의 황제가 임는 관복은 명황색(明黃色)이라 불리는 노란색을 이용했다. 북경 자금성 궁전들이 황색 지붕 기와로 덮여 있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종교는 신과 인간의 결합을 뜻해  
통합된 종교(Uniligion) 추구해야  
구시대의 유물인 이념을 버리고  
자연에서 인류의 공동선을 찾아

《조당집(祖堂集)》 제16권에 황벽회운 선사와 배휴(裴休)의 이야기가 있다. 배 상공(相公)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깊어 죽고 말았다. 선사가 마침 그 집에 있다가 상공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상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공이 얼마 있다가 깨어났다. 깨어난 상공은 저승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명부(冥府)에 들어가 보니 다리가 있어도 다닐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40~50리쯤 가다보니 지쳤습니다. 갑자기 연못이 보이기에 내가 그 못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노승이 못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벽 선사를 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만일 노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상공께서는 용이 될 뻔 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거나 무엇과 무엇의 결합은 엄청난 에너지 생성되고 신물들이 만들어진다. 수소와 산소의 적당한 배합으로 물이 만들어진 다. 물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담장 성인을 대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경전이나 어록을 접하므로 인생의 틀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실제로 만인이 없이 피상적인 공상만으로는 그 무엇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낱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흥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사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

갑은 동사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반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 호신불 |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고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

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하는 “반장”을 넣었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